



金時萬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 研究論文

스펀지의 物性を 利用한 陶製 照明燈 研究

2005

誠信女子大學校 造形大學院

造形藝術學科 産業陶磁器專攻

鄭 惠 苑

스펀지의 物性を 利用한 陶磁 照明燈 研究

金 時 萬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造形大學院

造形藝術學科 産業陶磁器專攻

鄭 惠 苑

認 准 書

鄭惠苑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造形大學院

論 文 概 要

21세기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삶의 다양성이 추구되는 사회로 현대인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내공간을 독창적으로 연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주거공간을 개성적이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디자이너의 노력이 거듭되고 있다.

한편 인테리어를 결정짓는 일상용품과 장식품들은 기계생산에 의해 규격화된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생활도자제품 또한 보편적인 디자인이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는 획기적인 디자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대도예에서도 작품의 기능성보다 조형성이 강조되고, 개인의 개성을 표출하려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오브제와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오브제는 산업도자제품 디자인에서도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펀지의 특성인 탄성과 가변성, 그리고 해면체와 같은 표면의 느낌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도제 조명등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제작방법은 스펀지의 물성인 탄성과 표면질감 등을 고형화시켜 다양한 형태를 석고틀로 제작하고 주입성형을 하였으며 1차 소성(850°C) 후 투명유를 시유하여 2차 소성(1230°C) 하였다.

이 시대의 생활용기는 용도로서의 충실성은 물론 감성적 요구에도 걸 맞는 심미적인 부분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공예운동의 일환으로 보여 진다.

目次

論文概要

I. 序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內容 및 方法	3
II. 本論	5
1. 스펀지에 관한 고찰	5
1) 스펀지의 정의	5
2) 스펀지의 종류와 용도	6
2. 生活陶磁속의 오브제의 役割	7
3. 審美性이 강조된 作品 事例	9
4. 試作品 製作 및 說明	13
1) 製作意圖	13
2) 製作過程	14
3) 試作品 說明	19
III. 結論	35

參考文獻

ABSTRACT

表 目 次

【표 1】 태토 조성비	14
【표 2】 유약 조합비	17
【표 3】 소성 온도표	18

圖 目 次

【도 1】 「오리형 토기」	11
【도 2】 「靑磁石榴形注子」	11
【도 3】 「동화백자복숭아연적」	11
【도 4】 조원이 作, 「주전자 합 set」	11
【도 5】 김희준 作, 「나비야, 나비야...」	11
【도 6】 윤지영 作, 「고요한 아침」	11
【도 7】 김성은 作, 「Line of Leaves」	12
【도 8】 조원이 作, 「주전자 합 set」	12
【도 9】 이세경 作, 「생의 形 I」	12
【도 10】 이세경 作, 「생의 形 VI」	12

試 作 品 目 次

【시작품 1】 도면	19
Dreams I	20
【시작품 2】 도면	19
Dreams II	20
【시작품 3】 도면	21
Dreams III	22
【시작품 4】 도면	23
be lost in wild fancies I	24
【시작품 5】 도면	25
be lost in wild fancies II	26
【시작품 6】 도면	27
Memories I	28
【시작품 7】 도면	29
Memories II	30
【시작품 8】 도면	31
같거나 혹은 다르거나	32
【시작품 9】 도면	33
春夢	34

I. 序 論

1. 研究目的

기계생산이 고도화됨에 따라 현대공예의 주류는 양산에 적응하는 industrial design이 되었으며, 디자인 이념은 기능주의, 능률주의, 합리주의가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규격화는 자유로운 공상이나 인간미를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현대사회는 작은 일상용품 하나에도 소비자의 기호가 우선시되며, 생산자 역시 대중들의 성향을 감안한 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되었다.

20세기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발전되어온 프로덕트 디자인은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감성공학에 기인하는 상품들로 범람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고 있으며, 用에 제한된 상품을 미적 안목으로 승화시켜 삶에 풍요로움을 제시하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주거공간에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등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명등은 시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소재로 변모되어 왔지만, 대규모적이고 표준화된 생산방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도제 조명등은 독립된 조형물에 갓을 씌우거나 투각기법을 사용하는 등 제한된 표현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이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편화된 조명등 디자인에서 탈피하고자 오브제적인 요소를 가미하려 하였으며, 이를 위해 스펀지의 물성에서 조형성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차별화된 도제 조명등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산업도자제품과 오브제의 접목으로 제품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바쁜 일상에서도 생활용품들을 통해 감상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삶에 있어 건강한 기폭제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2. 研究內容 및 方法

우리 유물 가운데 비록 제작 목적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상형화 된 기물을 많이 발견 할 수 있다. 신라시대 토우로 된 주전자나 고려청자 중에서도 종교적 의미가 지배된 상형자기를 볼 수 있으며, 이런 기형의 특징을 청자의 또 다른 진수로 여기고 있다. 조선시대의 문방용품이나 생활용기 중에서도 훌륭한 상형유물을 많이 접하게 된다.

시대마다 상형화되는 의미는 다르지만 제작자의 놀라운 奇智가 후대의 유물에 아름다움을 배가시키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이렇듯 과거에도 실제용도에 제한되지 않고, 심미적인 부분을 감안해 만든 유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술적, 사유적, 종교적 의미를 갖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현대인의 높아진 미적 감각으로 대변되며, 기존의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탈피할 수 있는 통로로써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브제를 심미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로 받아들여 대중들의 기호를 반영하고 조형적 가치를 지닌 독창적인 디자인의 도체 조명등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새로운 소재에 관한 탐구과정 중 스펀지의 물성과 표면질감에서 얻어낼 수 있는 유연성에 착안하여 조명등 디자인과의 연계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스펀지의 물리적 성질 중에 특히 유연성과 가변성에 의해 나타난 볼륨감, 유기적인 형태와 선에서 조형적 가치를 가진 형태를 찾고, 이러한 개체들을 다양하게 組合·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직사각형 Unit에 스펀지를 여러 각도로 결합시켜 다양한 표현을 하며, 스펀지 표면의 특성으로 불빛에 의해 투광되어졌을 때 심미적 효과를 높이려 했다.

제작방법은 먼저 스펀지를 cut, twist, press 등으로 나만의 정제된 조형성을 구축·고형화한 뒤, 스펀지의 질감이나 복수제작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석고틀을 이용한 주입성형으로 제작하였다. 태토는 투광성이 좋은 자기질 점토를 사용하며 투명유로 시유하여 형태미를 강조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II. 本 論

1. 스펀지에 관한 고찰

1) 스펀지의 정의

원래 바다 속 동물인 해면을 의미하는 단어. 해면의 다공질 골격은 보수성(保水性)이 있고 유연성·탄성이 풍부하므로 가정용품으로서 식기·가구·차의 세척용 브러시 등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고분자공업의 발달과 함께 해면과 똑같은 연속기포를 가지며 유연성·탄성이 풍부한 합성발포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임의의 크기로 균일하게 제조되어 현재는 거의 합성품으로 대체되었다. 대표적인 고분자는 폴리우레탄이며, 연질우레탄폼(연질발포폴리우레탄)으로서 제조·사용된다. 발포는 폴리우레탄 제조 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플론 가스 등의 발포제를 병용하기도 한다. 그 밖에 비스코스레이온으로 만드는 비스코스스펀지, 고무를 발포제로 발포시켜 만드는 스펀지고무 등도 있다.

2) 스펀지의 종류 및 용도

① Polyuretan Foam

종류-일반화학, 해면, L/F, 난연, 불연, 마블, HR(고탄성)등

용도-소파, 침대, 신발, 의류, 도전성, 공기정화기(휠타), 흡음용, 방음용, 수세미, 잡화용, 완구용, 자동차 시트, 몰드 성형가능, 악세사리, 컴퓨터 부착자재

② Rubber

종류-E.V.A., CR., E.P.D.M., NR SPONGE등

용도-퍼즐, 마우스 패드 및 키보드, 매트, 전자부품, 케이스, 화장품, 신발, 가방, 공업용 건축재, 스포츠 용품

③ Latex

용도-침대, 소파, 화장품 분침용

④ P.V.C Foam

종류-제품이 부드럽고 복원력이 우수함. 흡음성, 위생성, 충격흡수성, 보온성 등이 요구되는 용도에 적합한 제품이다.

용도-주방매트, 마우스패드, 자동차, 철도차량, 물탱크 등의 sealingd용, 충격흡수용 및 접착 tape용

⑤ P.V.A

종류-Open sell로서 물 흡수력과 인장력이 뛰어나고 제품을 부드럽게 하여 화장얼굴을 세척하여도 피부 손상이 안가고 깨끗하게 닦여진다.

용도-반도체 세척용, 로라, 화장품 크린싱용, 정수휠타, 세차용

2. 生活陶磁속에 오브제의 役割

개인의 내제된 감성적 욕구와 기호를 다원화된 소재와 방향으로 작품에 표출함으로써 새로운 도자예술의 방향 전환이 시도되고 있으며, 개성적 표현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산업사회가 추구했던 규격화, 표준화, 대량화에 맞서는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으로 도자예술에도 비규격화, 비표준화, 개인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과거의 산업공예 성향으로부터 탈피하여 순수조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는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런 다양한 방식 가운데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브제(Object)¹⁾이다.

현대도예는 오브제와의 접목으로 더욱 다원화된 양식과 표현방법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것은 조형도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도자 디자인에도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는 디자인을 통해 삶의 물적 환경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활 주체들의 감수성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사고의 확장과 은유로 개체의 속성을 연결시키는 창조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일상의 공간에서 바이올린 모양의 전화기, 주전자 모양의 시계 등 은유적으로 표현된 다양한 사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은유는 하나의

1) 객체(客體)라는 뜻. 현대 예술용어로서는 일상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물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의미를 붙인 물체를 뜻한다.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등 전위예술에서 상징·몽환·괴기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쓰인 재료, 즉 돌·차바퀴·머리카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대상을 다른 대상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려는 움직임으로, 디자인에 있어 은유의 등장은 사물의 연상성과 표현성 회복의 의미를 가진다.²⁾

이런 은유적 표현 등의 오브제적인 요소를 산업도자제품 디자인에 접목시켜 사물의 기능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고 정서적, 심리적인 부분들이 반영된 자유로운 형식의 디자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오창섭, 「이것은 의자가 아니다」, 홍디자인, p.121

3. 審美性이 강조된 作品 事例

상형기물을 제작하던 전통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려시대 상형청자, 현대도예에서도 기능과 더불어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라시대 토우, 고려시대 상형청자, 조선시대 상형백자의 형태 및 주술적 의미와 현대도예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도1] 은 신라시대의 토우 중 중공형태(中空形態)로 용기의 구실도 할 수 있는 상형 토기이며, [도2, 도3] 은 구체적인 식물의 형태를 기물로 만든 상형 기물로 입체적인 구조물로서의 조형적 특징을 가진다. [도4, 도5, 도6, 도8,] 은 생활도자 제품에 오브제적인 요소를 도입한 사례이며, [도13, 도14] 는 스펀지의 물성을 이용해 만든 도제 조형작품이다.

[도1] 「오리형 토기」는 목에 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집에서 기르는 것임을 말해 줄 뿐 아니라 너무 사실적이고 애교 넘치는 솜씨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 짓게 한다. 이러한 오리나 물새를 나타낸 토기들은 아마도 비를 비는 행사에 쓰였으리라 짐작된다.

[도2] 「靑磁石榴形注子」는 네 개의 석류를 조합하여 주자의 몸통을 만들고 잎과 가지를 응용하여 주구와 손잡이를 만들어 붙여 수준 높은 구성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석류는 많은 아들을 얻고자 하는 주술적인 심리를 표현한다.

[도3] 「동화백자복숭아연적」은 탐스런 천도복숭아의 모습을 그대로 연적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빨간 동화 안료가 주구를 중심으로 끝부분에 채색되었다. 복숭아는 민간신앙에서 축귀(逐鬼)의 효능을 지닌 것으로 믿어졌다.

[도4] 조원이 「주전자 합 set」는 문계구름을 통해 느껴지는 다양한 형태와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주전자의 빈 공간에 합을 구성하여 새로운 공간연출을 시도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³⁾

[도5] 김희준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 오너라... I」은 꽃이 주는 시각적인 행복감과 작고 연약한 나비가 주는 보호본능이 우리에게 한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고자 한 의도로 제작되었다.

[도6] 윤지영 「고요한 아침」은 나무에 앉아 마치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며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을 비웃고 있는 듯한 새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새들처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갖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도7] 김성은 「Line of Leaves」은 둥굴레 잎의 유기적인 곡선을 응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조명의 기능을 추가하여 실용성과 심미성을 함께 나타낸 작품이다.

[도8] 조원이 「조명등」은 노을의 환상적인 느낌과 구름의 율동미를 강조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이러한 형상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주거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9] 이세경 「생의 形 I」은 힘이 안에서 밖으로 응축되었다가 분출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마치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며 유기체의 각 부분으로 자라나는 것으로 생성 또는 성장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도10] 이세경 「생의 形 VI」은 의도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행위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때로는 어떤 것을 연상시키기도 하여 그 이미지에서 때론 새의 모습이나 하늘에 한적하게 떠있는 구름으로 느껴지게 하였다.

3) 조원이, “구름(雲) 形象의 生活陶磁 디자인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21p



【도 1】 「오리형 토기」



【도 2】 「青磁石榴形注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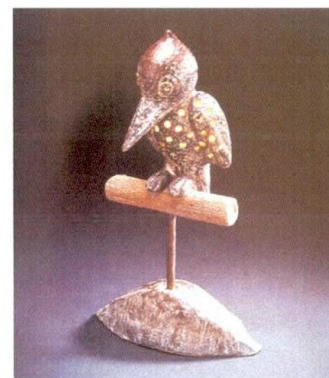
【도 3】 「동화백자복숭아연적」



【도 4】 조원이 작, 「주전자 합 set」



【도 5】 김희준 작, 「나비야, 나비야...」



【도 6】 윤지영 작, 「고요한 아침」



【도 7】 김성은 작, 「Line of Leaves」



【도 8】 조원이 작, 「주전자 합 set」



【도 9】 이세경 작, 「생의 형 I」



【도 10】 이세경 작, 「생의 형 VI」

4. 試作品 製作 및 說明

1) 製作意圖

현대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락하고 독창적인 실내공간 연출이 요구되며, 주거공간연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명등에도 개인의 감각과 취향이 우선시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조명등은 대량생산에 의해 표준화, 규격화된 제품이 대부분이며 도제 조명등 또한 획일화된 기법과 형식으로 디자인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새로운 방향으로의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산업도자분야에 오브제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새로운 소재 발굴과 함께 독창적인 디자인의 도제 조명등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며, 제작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위 발견된 오브제로 사물에 대한 재인식, 재해석이라는 새로운 경지를 맛보게 한다.

둘째, 일상용도로 쓰이는 스펀지를 조형재료로 재인식하고 스펀지의 물성인 가변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획기적인 도제 조명등 디자인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산업도자와 오브제의 접목으로 제품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조명등이 독립적인 도제작품으로 소등할 때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고 점등할 때 심리적 안정감과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도제 조명등이 소량 다품종으로 생산되어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주거 공간연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2) 製作過程

(1) 태토

시제품에 사용된 태토는 스펀지 표면의 세밀한 부분의 탈영이 용이하고 투광성이 좋으며 이장주입성형에 용이한 자기질점토를 사용하였다.

건조된 태토 100g에 물 45g, 해교제(규산소다) 0.5g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다소 경험에 의존하기도 하였다. 외벽에서 균일한 두께의 형성을 위해 슬립의 용용상태를 각각의 형태와 요철을 고려하여 수작업에 의한 판단으로 물의 양과 해교제를 조절한 후 충분히 교반하였다.

<표 1> 태토 조성비

(%)

성분	SiO ₂	Al ₂ O ₃	Fe ₂ O ₃	MgO	K ₂ O	Na ₂ O	TiO ₂	Ig.Ioss
비율	68.14	22.64	0.23	0.42	1.63	1.12	0.07	5.75

(2) 제형

원형은 태토의 수축률과 소성 수축률을 감안하여 시제품 크기를 15%확대하여 제작하였다. 스펀지 원형에 수성페인트를 3~4번 얇게 덧바르고 건조시키면 스펀지의 질감과 형태가 유지되면서 표면이 딱딱해져 석고형 제형 시 스펀지가 눌리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그 위에 카리비누를 충분히 거품을 내어 칠하고 흐르는 물에 헹궈내면 스펀지의 겉 표면이 코팅되어 석고형 제작 후 원

형과 틀이 쉽고 깨끗하게 분리된다.

시제품 3의 경우 직사각형틀 하나를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사용해 응용성을 높였고, 모든 외형석고는 소석고 100g, 물 75%를 기준으로 혼합하여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천천히 건조하였다.

(3) 성형

시제품 제작 시 조명등인 것을 고려하여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얇은 두께로 성형할 수 있도록 이장주입기법을 사용하였고, 석고형 내부에 3~5mm두께를 형성한 후 남은 이장을 배출하였다.

시제품 1, 2는 석고틀에 이장주입 후 5mm의 두께가 형성되면 남은 이장을 배출하고 20분 동안 틀의 방향을 상, 하, 좌, 우로 각 5분씩 유지시킨 후 탈영하여 기물의 손상을 줄일 수 있었다.

시제품 3, 4는 사각 석고 틀 내부 이장의 두께를 5.5~6mm로 형성하고 스펀지 석고틀 내부 이장의 두께는 3~3.5mm로 형성하여 두 개체를 조합하여 제작한 완제품에 조명을 투과하였을 때, 스펀지 부분이 집중적으로 투광되도록 의도하였다.

시제품 4는 사각틀 크기가 매우 커서 주입구를 통한 이장배출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장치를 만들고, 석고형 바닥 중앙에 20mm지름의 구멍을 내어 이장을 배출하도록 하였다.

기복이 심한 부분에는 같은 태토의 초벌파편을 잘게 부쇄 요철부분에 뿌려 주어 기물이 틀에서 손쉽게 탈형되도록 하였다.

(4) 시유 및 소성

1차 소성은 전기가마에서 850°C까지 7시간 동안 소성하였고, 시유는 작품의 형태미와 스펀지 표면의 질감을 강조하기 위해 모두 투명유로 하였다. 2차 소성은 전기가마에서 1230°C까지 하였으며, 투광성은 높이기 위해 14시간 동안 천천히 소성하였다.

<표 2> 유약조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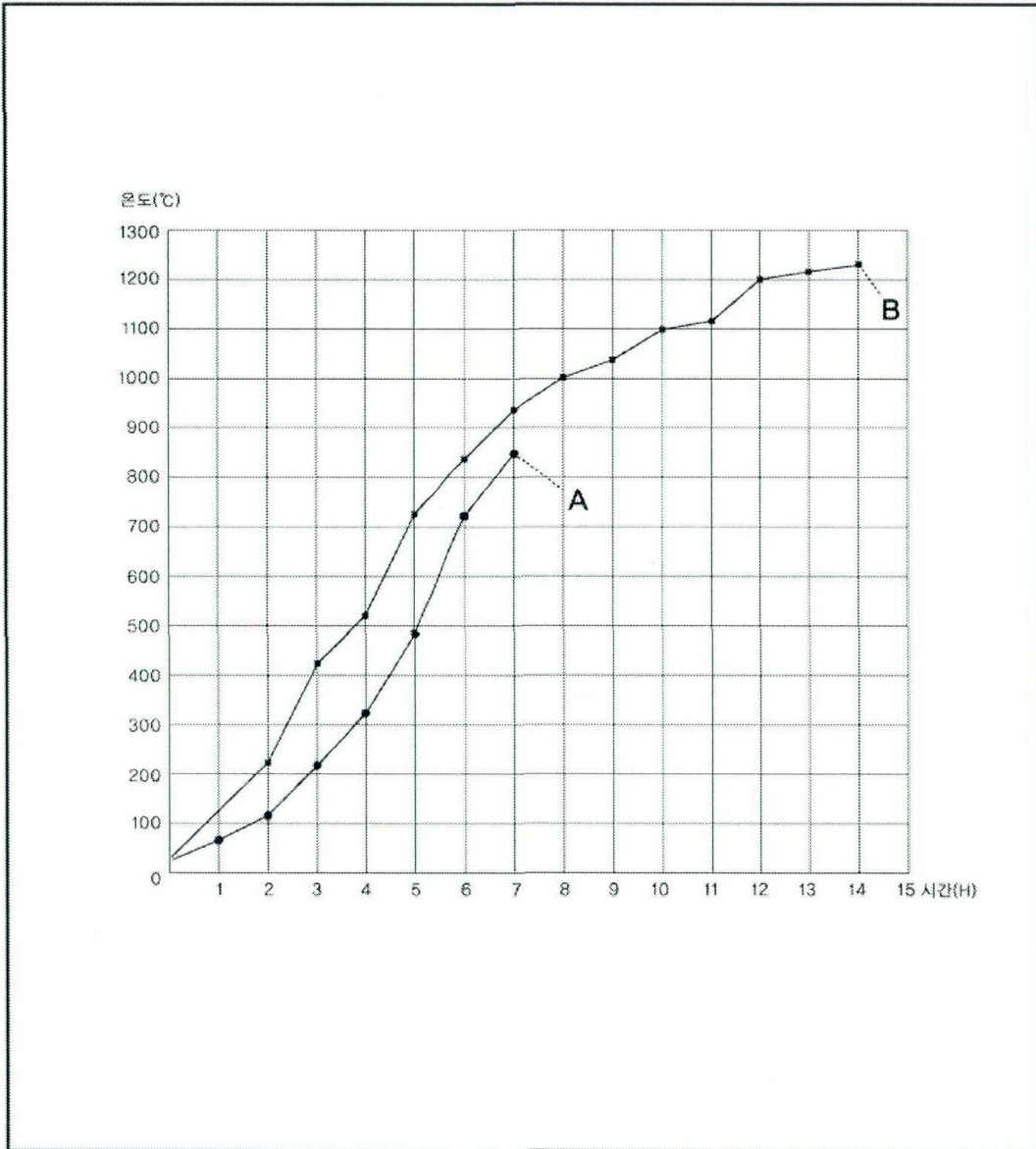
(%)

원 료	유 약	투명유
카리장석($K_2O \cdot Al_2O_3 \cdot 6SiO_2$)		55.0
규석(SiO_2)		10.0
석회석($CaCO_3$)		15.0
카오린($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10.0
탄산바륨($BaCO_3$)		5.0
아연화(ZnO)		5.0
계		100

<표 3> 소성 온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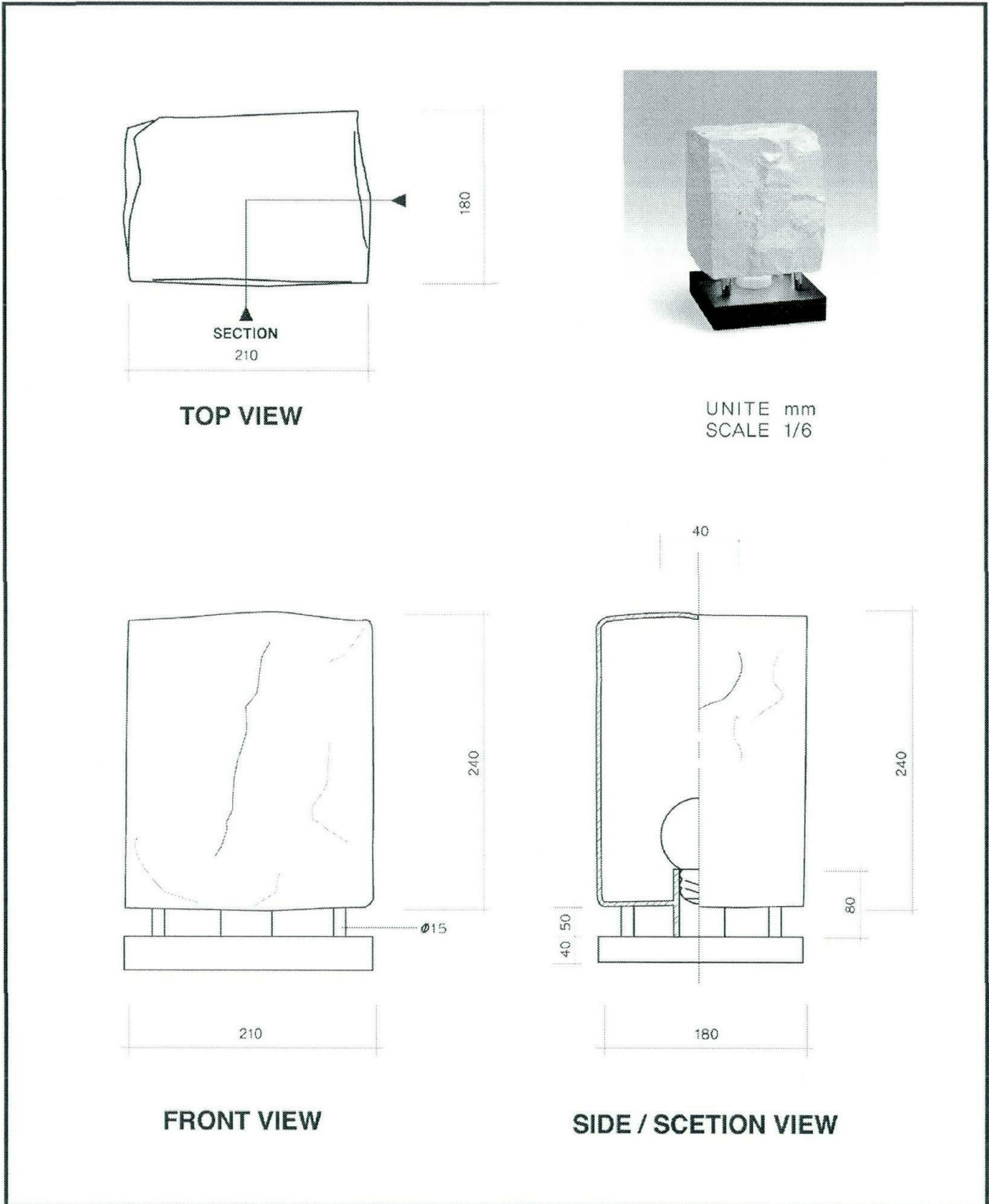
A : 1차 소성

B : 2차 소성



3) 試作品 説明

【시작품 1】 도면



【시작품 1, 2】 Dreams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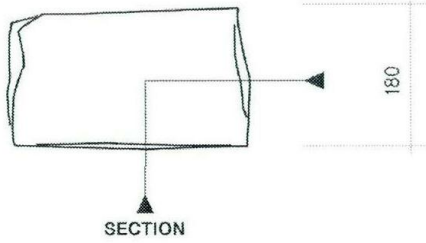


투명유, 1230℃ 산화소성, 240×180×210mm(h)
210×180×210mm(h)

단일체로 구성된 형태의 권위적이고 관조적인 특징을 살려 일반 회사 및 사무실 내부공간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두께 20cm의 스펀지 표면을 날카로운 칼로 cutting 한 후 뜯어내어 자연스러운 질감표현을 의도하였고 금속 부자재를 설치함으로써 스펀지형태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시작품 3】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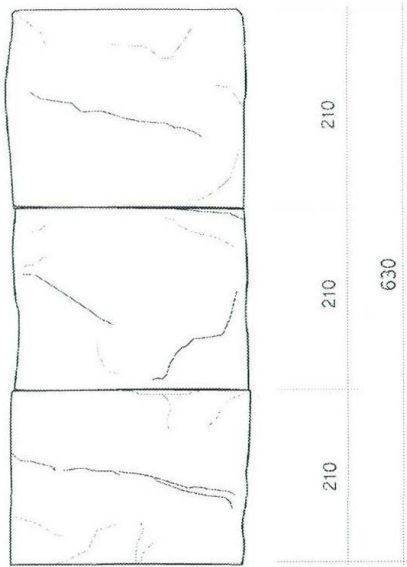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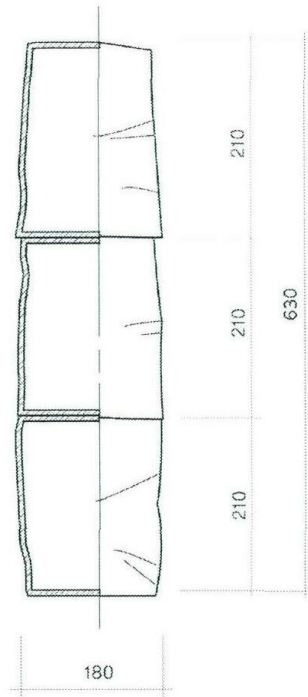
TOP VIEW



UNITE mm
SCALE 1/10



FRONT VIEW



SIDE / SCE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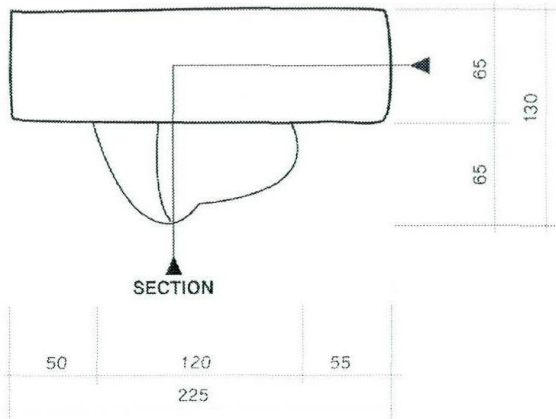
【시작품 3】 Dreams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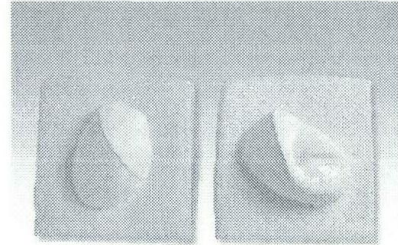
투명유, 1230℃ 산화소성, 240x180x630mm(h)

건물 1층의 로비나 코너에 위치하도록 고려한 디자인이며 사각 형태로 cutting된 스펀지를 이용해 위엄 있는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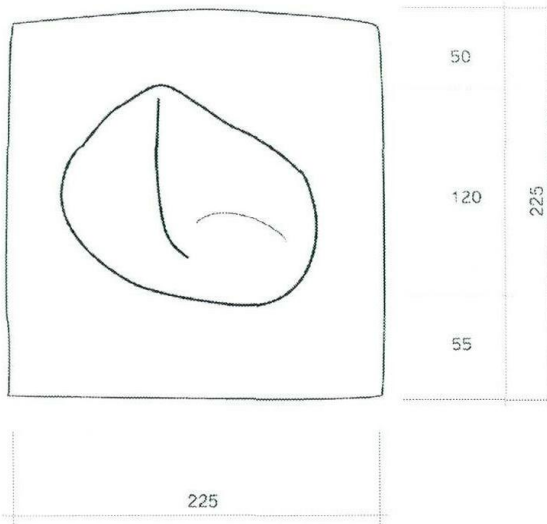
【시작품 4】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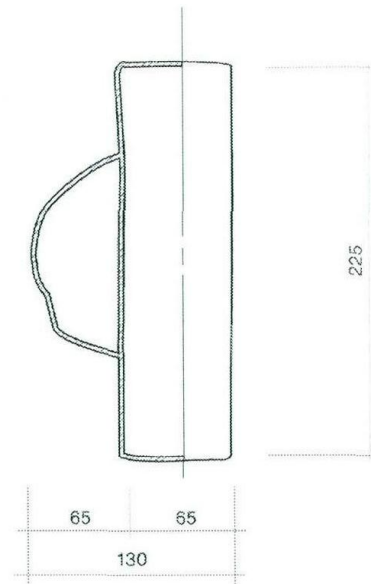
TOP VIEW



UNITE mm
SCAL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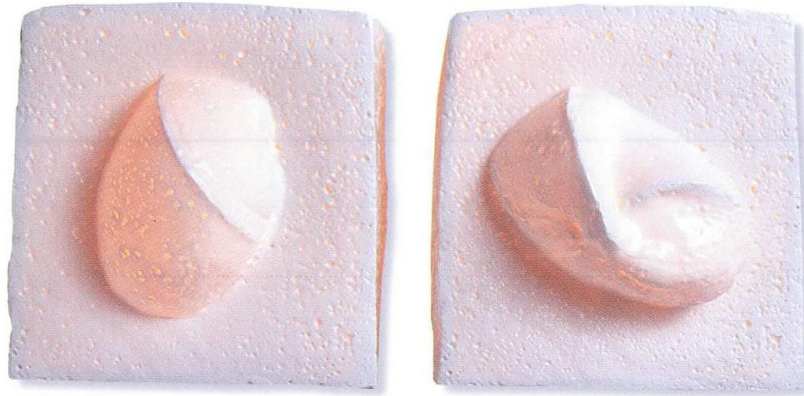


FRONT VIEW



SIDE / SCE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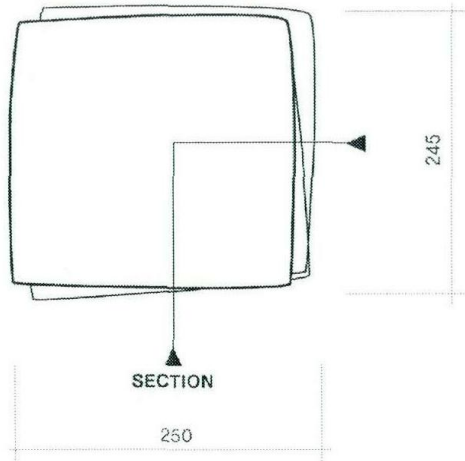
【시작품 4】 be lost in wild fancies I



투명유, 1230℃ 산화소성, 225×225×130mm (h)

스펀지의 양감과 부드러운 질감을 강조한 안정감 있는 형태의 벽걸이 디자인으로 주거공간의 거실이나 침실 벽면에 위치하여 안락한 분위기조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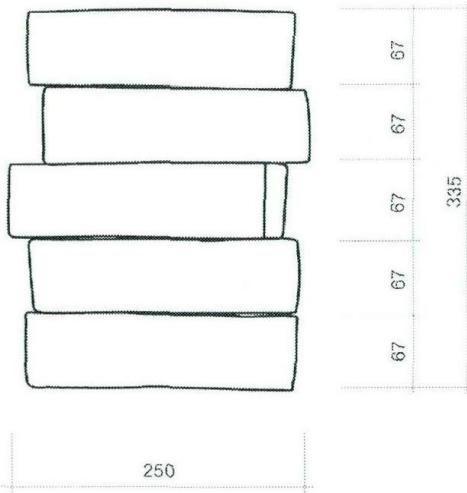
【시작품 5】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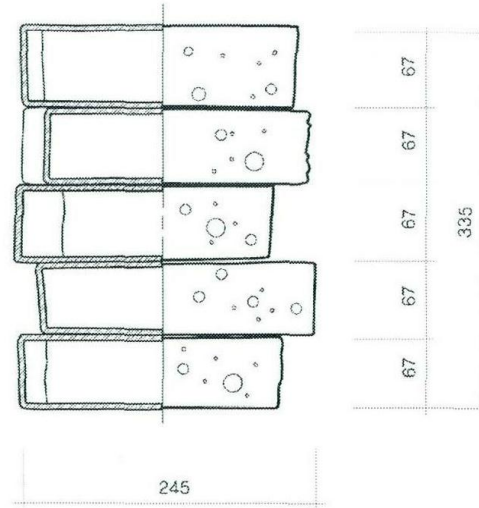
TOP VIEW



UNITE mm
SCALE 1/8



FRONT VIEW



SIDE / SCE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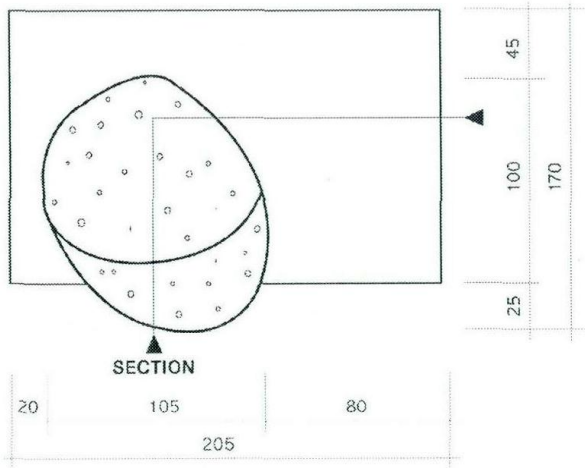
【시작품 5】 be lost in wild fancies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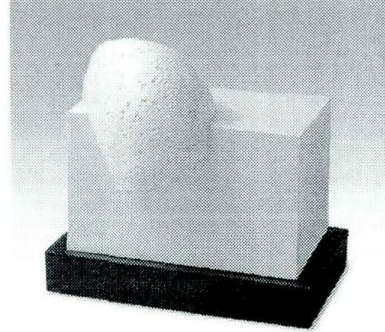
투명유, 1230℃ 산화소성, 250x245x335mm(h)

스펀지 unit를 반복적으로 쌓아올린 형태로 현대인의 잠재의식 속에 누적된 기억들의 단상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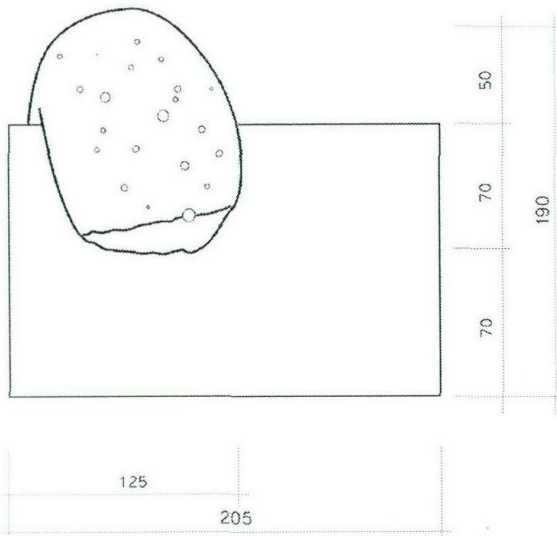
【시작품 6】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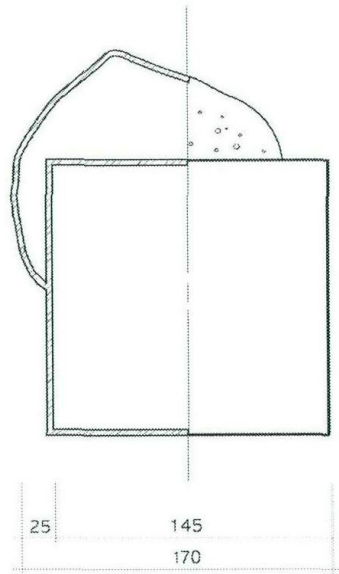
TOP VIEW



UNITE mm
SCALE 1/6



FRONT VIEW



SIDE / SCE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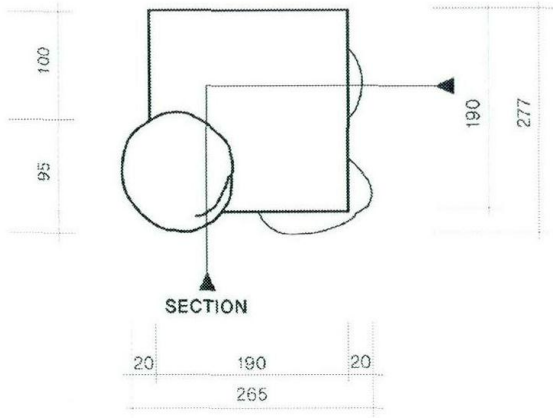
【시작품 6】 Memories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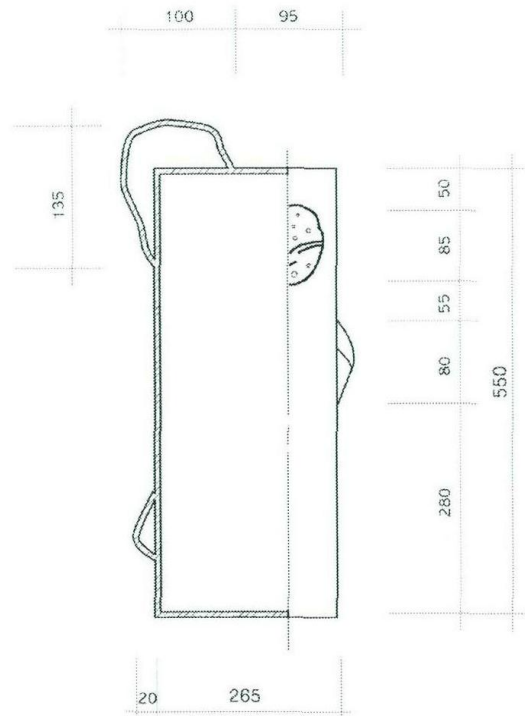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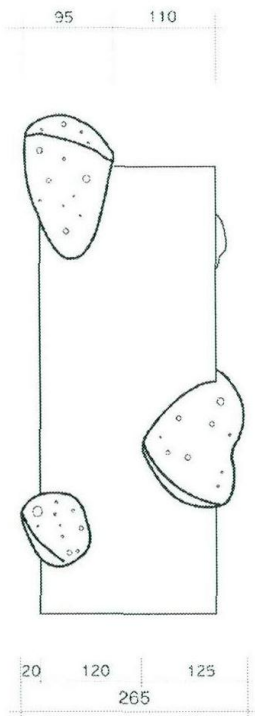
투명유, 1230℃ 산화소성, 205×170×190mm (h)
160×170×210mm (h)
150×185×185mm (h)

다목적 기능을 갖는 거실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복합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안정감과 통일성을 위해 직육면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스펀지 unit를 다양한 각도로 접합하여 형태의 변화와 시각적인 재미를 주고자 하였다.

【시작품 7】 도면



UNITE mm
SCALE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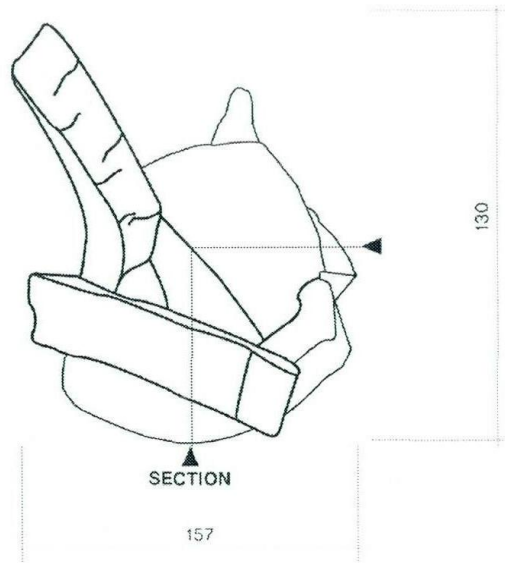
【시작품 7】 Memories II



투명유, 1230℃ 산화소성, 265×3277×550mm(h)

각각의 스펀지 위치에 변화를 주어 작품 속에서 공간성을 갖게 하고 스펀지의 볼륨감을 다각도로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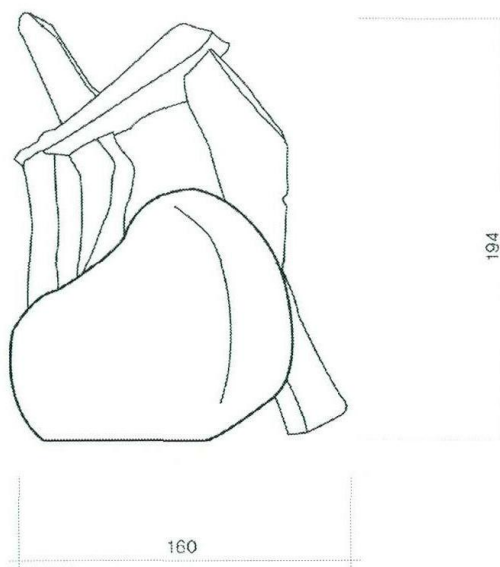
【시작품 8】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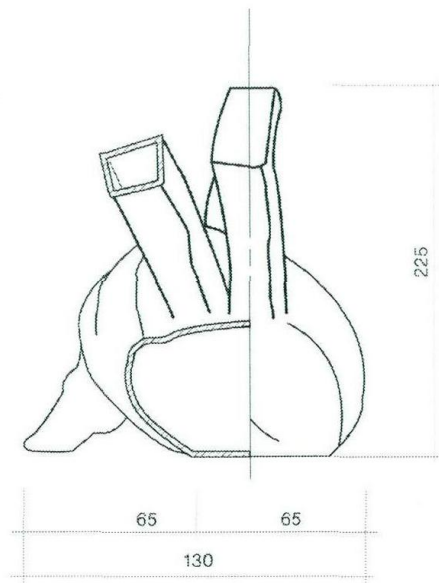
TOP VIEW



UNITE mm
SCALE 1/4



FRONT VIEW



SIDE / SCE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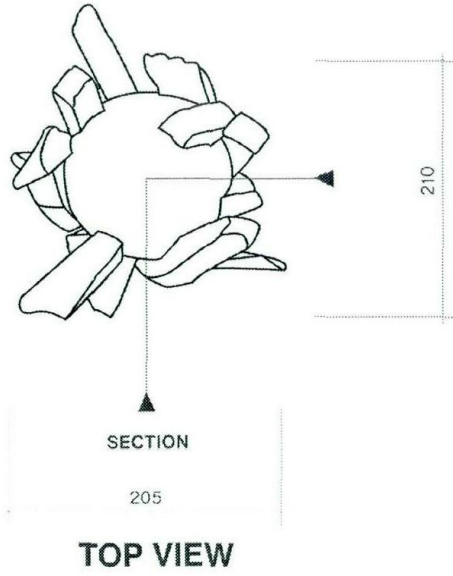
【시작품 8】 같거나 혹은 다르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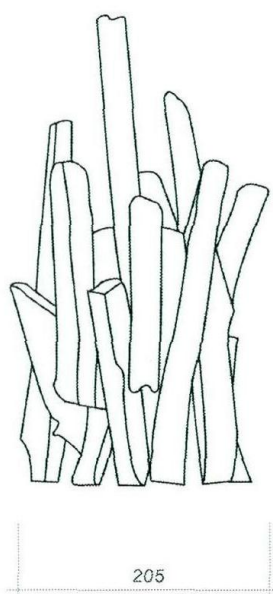
투명유, 1230℃ 산화소성, 185×128×240mm(h)
183×129×243mm(h)
160×130×225mm(h)

조명등형태를 주전자의 형식에서 가져와 은유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색다른 느낌의 조명등을 디자인하였고 주전자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형태와 비례 위치 등에 변화를 주어 생명력과 경쾌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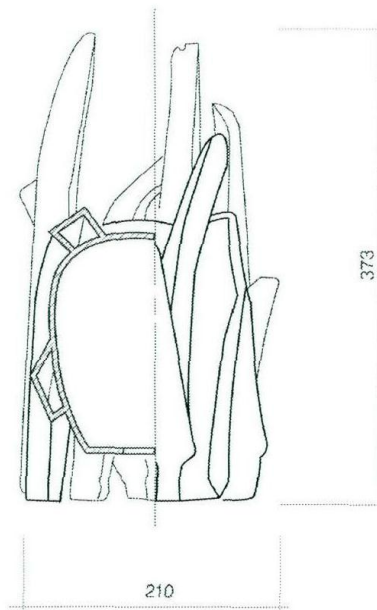
【시작품 9】 도면



UNITE mm
SCALE 1/8



FRONT VIEW



SIDE / SCETION VIEW

【시작품 9】 春夢



투명유, 1230℃ 산화소성, 205×210×373mm(h)

따스한 봄날, 꿈속의 기억들을 형상화한 것으로, 스펀지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여러 개체들을 조합하여 조형성을 강조하였다.

Ⅲ. 結 論

현대인들에게 조명등은 단순히 기능성을 가진 생활용품의 개념이 아닌 하나의 예술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춘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스펀지의 물성을 오브제적인 요소로 발전시켜 새로운 소재와 형식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의 도제 조명등을 제작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상용도로 쓰이는 스펀지를 조형재료로서 재인식하고 물성에 관한 연구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소재발굴과 제품디자인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산업도자와 오브제의 접목으로 산업도자제품의 미적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디자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기존의 식상한 조명등 디자인에서 탈피하고 생활도구인 조명등에 예술적 가치를 갖게 하여 새로운 디자인 창출을 시도하였고, 인텔리게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수공예제품이 소량 다품종체제로 대중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도제 조명등에 있어서 열원에 관해 개선되어야 함을 느꼈으며, 보다 상품성 있는 형태로 거듭 발전될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제적인 유택함과 급변하는 생활패턴으로 인해 환경이 개선되고, 생활용품들도 이에 편승하여 발전을 요구받게 된 시점에서 작은 관심 하나가 도예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였으면 한다.

參 考 文 獻

- 김병익 · 이용직, 「디자인개론」, 태학원, 2003
- 김성은, “식물의 곡선을 응용한 도자제품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2003
- 김희준, “나비를 주제로한 도제조명등 연구”, 국민대학교, 2000
- 모인순, “점토혁명”, 보문당, 1995
- 백은경, “高麗 象形靑磁 研究”, 홍익대학교, 2004
- 신상호, “현대도예-미래를 향한 움직임”,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3
- 양 현, “건축에 있어서의 빛을 이용한 도자표현연구”, 국민대학교, 2003
- 오창섭, “이것은 의자가 아니다”, 흥디자인, 2001
- 윤용이, “우리 옛 도자기”, 대원사, 2002
- 윤지영, “동물형상을 응용한 도자 조명등 연구”, 국민대학교, 2002
- 이세경, “스폰지의 物性を 이용한 陶磁造形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1998
- 이승엽, “도제오브제주전자연구”, 서울산업대학교, 2004,
- 이제국, 「디자인가치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2
- 조광식, “도제 스탠드 램프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2003
- 조원이, “구름(雲) 形象의 生活陶磁 디자인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2002
- 최 건, 「KORFAN Art Book」 -토기·청자 I, 예경, 2000
- Clark · Garth, 「도자예술의 새로운 시각」, 미진사, 1986
- Donald A · Norman, 「디자인과 인간심리」, 학지사, 2003

ABSTRACT

A study on Ceramic Illuminators by Using Properties of a Sponge

Chung, Hea Won

Industrial Ceramics Major

Dept. of Plastic Arts

Bulletion of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society seeks both wealth of material life and diversity of mental life in the 21st century when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creative interior designs. Designers attempt to improve residential spaces in a personal or rational way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Commodities or decorations which determine interior designs are likely to be standardized. Ceramic products also have common designs. Therefore, it is time to need an epochal design to satisfy a variety of tastes.

Modern ceramic art put emphasis more on a form than on a function and pay attention to expressing individuality. Therefore, the relationship

with an *object* is focused. In addition, an *object* has a possibility to be diversely applied to designs of industrial ceramic products.

Accordingly, this study shows that a method use elasticity, flexibility and peculiar touch of a sponge to manufacture ceramic illuminator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products.

A manufacturing method was an injection modeling to solidify elasticity and peculiar touch and then produce a variety of forms with a plaster frame. Plasticity was conducted at 850°C and then again conducted at 1230°C with transparent glass.

A vessel in the present requires satisfactory use as well as an aesthetic form for emotional demand. It is regared as a part of a new ceramic art movement.